울산산업보건센터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 참여하다

박민수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1987년 동해산업보건센터로 개소했던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이하 울산센터)는 1994년 울산산업보건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35년 간 울산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산업보건 전문기관이다. 1997년 IMF 위기와 2020년 코로나19라는 얘기치 못한 악재 속에서도 울산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받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각계각층의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겠지만, 그 가운데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가장 염려하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취약노동자의 보건관리가 아닌가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월 29일은 우리 울산센터에 매우 뜻깊은 날이 될 것이다.

바로 울산 북구청 다목적실에서 2021년도 제1차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위원회가 열린 날이기 때문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사업경과 및 2021년 국비 공모사업 보고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동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비롯해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옥민수 조교수 등 공공의료기관 종사자와 북구청의 실무 공무원 등 모두 10여 명이 넘는 관계 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2014년 10,000,000원의 사업비로 시작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은 매년 그 사업예산을 확충해왔다. 찾아가는 건강지원 사업, 지역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국비 공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국비 공모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사업내용 및 추진 성과
	추진 성과
2014년	• 지역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국비 공모 • 찾아가는 건강지원 사업 : 건강진단 188명 / 건강상담 86명 의료진 등 자원봉사 참여자 : 251명 • 건강진단에 대한 사업체 기본 현황과 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근골격계증상 조사
2015년	• 지역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국비 공모 • 찾아가는 건강지원 사업 : 건강진단 177명 / 건강상담 110명 의료진 등 자원봉사 참여자 : 108명 • 건강증진 서비스 필요정도 사후 설문조사 • 사업참여자 면접조사 : 10명
2016년	• 지역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국비 공모 • 찾아가는 건강지원 사업 : 건강진단 108명 / 건강상담 53명 • 울산광역시 북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 지원방안 연구
2017년	• 지역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국비 공모 • 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 302명 아파트 청소근로자 건강진단 및 운동처방 등 : 4개 아파트 50명 • 현대자동차 노사/울산 북구 '건강버스'기부 협약 체결
2018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국비 공모 • 건강리더 양성교육 20명 수료 •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사업 7개학교 참여 • 버스 및 화물근로자 건강관리 사업 – 버스 근로자 500여 명, 화물근로자 346명 • 찾아가는 행복 건강버스 운영(9~12월) – 34회, 709명 건강진단 및 상담

2019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국비 공모 • 울산교육청과 MOU 체결 및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사례 교육(3회) • 버스/화물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 – 차고지 3개소, 화물 휴게소 2개소 : 1,328명 • 시트봉제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 3개소 • 찾아가는 행복 건강버스 운영(9~12월) – 397회, 2,101명 건강진단 및 상담
2020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국비 공모 • 찾아가는 화물차 건강관리 월 1회(6~10월) : 121명 참여 • 청소근로자 맞춤형 안전보건교육(6~10월) : 13개 아파트(99명) • 참여형 작업환경 컨설팅 – 6개 학교(43명) – 1개 제조업 사업장(30명) • 배달근로자 작업환경 및 건강실태조사 : 100명 설문 및 FGI 진행 • 아파트 및 학교 경비근로자 건강관리 – 14개 초소(27명) – 24개 학교(28명) • 맞춤형 의사상담(11~12월) • 울산광역시와 울산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재정 • 북구청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담당자 채용(12월) : 1명

2021년은 12,500,000원(국비 10,000,000원 / 구비 2,500,000원)으로 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컨설팅, 취약노동자 건강관리 및 관련 교육,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은 2021년 4월부터 시작해 2021년 11월까지 진행된다.

2021년 지역사회 공헌 사업 진행에 울산센터의 조미영 건강진단팀장이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기대가 크다.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써 연간 4회 이상의 협의회 참석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일과 사람의 조화'를 목표로 1963년 설립된 우리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이제 만 60년이 다 되어가는 국내 굴지의 산업보건전문기관이다. 비영리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헌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건강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